

■ 박근종 칼럼

역대 최대 728조 ‘확장 예산’ 나랏빛도 142조 증가, 구조개혁 나서야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우며 그동안의 건전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할 적극적인 인 재정 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단순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하며 사상 처음 예산 총지출 700조 원대의 슈퍼예산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673조 3,000억 원보다 54조 7,000억 원(8.1% ↑) 늘린 728조 원으로,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651조 6,000억 원보다 22조 6,000억 원(3.5% ↑) 증가한 674조 2,000억 원으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에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경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초) 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를 하고, 낭비성·동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통하여 성과 중심적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 했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 거점 성장 등 초 혁신 아이템을 발굴해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에 가장 많은 269조 1,000억 원을 배분하고 이어 △일반·자치행정(121조 1,000억 원) △교육(99조 8,000억 원) △국방(66조 3,000억 원) △연구개발(R&D·35조 3,000억 원) 순으로 지출한다. 이렇듯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 재정을 성장을 뒷받침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실제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은 이를 방증(傍證)한다.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려 10조여 원으로 책정했고 연구개발(R&D) 예산(35조 3,000억 원)은 사상 최대치다.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지출 증가율 8.1%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8.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건전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3년의 연간 평균 증가율 3.5%의 2.5배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만 적자 국채를 110조 원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 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예산을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늘렸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72조 원),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175조 원),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30조 원)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 정부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9조 6,000억 원에서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 8.1%의 2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인공지능(AI) 로봇, AI 자동차 등 피지컬 AI 중점 사업에 4,862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다. AI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올해 7,000억 원에서 내년 1조 4,000억 원으로 2배나 늘린다. AI 기술 개발과 확산에 필수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대를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5월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차 추가경정예산과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등 4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나랏빛’도 더욱 늘어날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재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 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춰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나라 살림이 갈수록 빠듯

해지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00조 원을 넘고, 2029년에는 1,8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세수로는 이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다. 재정 안정성 불안은 피하기 어렵다. 늘어난 빛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은 내년 674조 2,000억 원에서 2029년 771조 1,000억 원으로, 총지출은 내년 728조 원에서 2029년 834조 7,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1,415조 2,000억 원에서 2029년에는 1,788조 9,000억 원에 달해 올해보다 510조 원이나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내년엔 51.6%를 기록한 뒤 2029년 58%에 달한다. 지출 규모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향후 5년간 연평균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 정부 3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2.5~5.1%였던 것과 비교할 때 확장 재정 기조는 선명도가 뚜렷하다. 정부는 저성장과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 기조는 불가피한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너무 재정 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라며,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성과를 내면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답변바 있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관건은 재원이다. 5년간 늘어나는 지출에 비해 세수 증가율은 더디다. 세수는 연평균 4.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또 내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80조 5,000억 원으로 처음 80조 원 선을 넘어선다. 재정지출(728조 원)까지 합치면 정부의 내년 실질적 씹씹이는 808조 원에 달한다. 더구나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면서 이자 부담마저 커진다. 국채 이자 지출은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8,0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내년 국채 이자는 36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 원 이상 늘고, 2029년에는 4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공적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이 급증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54%에서 2029년 56% 가까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재량지출 비중은 2029년 44%로 줄어들어 정부의 정책적 선택 여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금리가 오른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유럽의 재정 모범국이었던 프랑스는 최근 몇 년간 4~6%의 재정적자 지속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졌고,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 경제로선 재정 건전성이 최후 방어선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예산 확대편성 이유로 “산업 경제 혁신과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 개선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타당한 진단이자 올바른 처방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 부채와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0%대 저성장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적극적 재정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선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확대재정 정책은 필요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한시적으로나마 확대재정 정책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듯 작금의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 경기 장기침체와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내년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1.8~1.9%)에 못 미치는 1.6%에 그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만큼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재정확장 기조가 지속해 이어지는 경우 현 정부 임기 말이면 유럽연합(EU)이 제시한 비(非) 가족통화국 재정 건전성의 ‘바로미터(Barometer | 평가 기준)’이자 ‘마지노선(Maginot 線)’으로 간주하는 ‘국가채무 비율 60% 선(線)’마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으로 나라 기간을 축내는 선심성 예산을 살살이 걸러내야만 한다. 내림과 고통 분담의 지구적인 구조개선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잠재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총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감이 없지 않다. 게다가 재정지출은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2021년 안일한 전 기재부 차관이 재정 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악어의 입’이란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에 머물고 있는데 다 제조업 둔화와 내수 침체의 탈출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관세전쟁으로 수출 전망마저 어둡고 암울하다. 재정의 적재적소 효율적 집행과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성장으로 연계된다. 여기에 규제 완화, 제도 개혁 등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씨앗을 아무 곳에나 뿌려낸다고 다 수확할 수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결론은 재정지출을 늘리되 가급적 이라던 생산적인 지출 중심으로 늘리고 선심성 지출은 줄이면서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 담보하는 것이 핵심 요체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로! 엔하이픈과 함께 「Let's Play, Seoul My Soul」

영감·연결·재미·에너지 등 4대 핵심 키워드로

K-Origin의 수도, 서울 브랜드 위상 제고



서울시는 2025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글로벌 K-POP 그룹 엔하이픈(ENHYPEN)과 함께한 글로벌 홍보 영상 「Let's Play, Seoul My Soul」을 9월 19일(금)에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한강버스, 정원도시, 야외도서관 등 서울의 대표 정책과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요 공간을 담아 K-POP 아티스트와 협업한 글로벌 홍보 영상으로, 서울의 매력을 외국인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엔하이픈(ENHYPEN)은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I-LAND」 출신 7인조 보이그룹으로, 뛰어난 음악성과 퍼포먼스로 2020년 데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 세계적 인지도와 탄탄한 해외 팬덤을 바탕으로 에너지(Energy)와 영감(Inspiration)이 넘치는 젊고 글로벌한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대표할 아이콘으로 지난 6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영상에서 엔하이픈(ENHYPEN)의 멤버 7인은 「서울 플레이북 365」를 매개로 하여 각자 관심 있는 서울시의 대표 정책과 다양한 매력 요소를 4가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소개한다.

영상 속 핵심 키워드는 ‘영감(Inspiration), 연결(Connection), 재미(Excitement), 에너지(Energy)’로, ‘수곳에나 뿌려낸다고 다 수확할 수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결론은 재정지출을 늘리되 가급적 이라던 생산적인 지출 중심으로 늘리고 선심성 지출은 줄이면서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 담보하는 것이 핵심 요체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강 3종 축제 등을 소개하고 서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여의도공원 등 서울의 매력적인 장소들을 함께 아름다운 영상미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케이팝 대문 헌터스의 인기로 힘입어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낙산공원, 남산서울타워도 등장하여 글로벌 시민들을 만난다.

이번 글로벌 홍보영상은 1분 분량의 본영상 1편, 30초 분량의 TV 광고용 영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와 함께 엔하이픈 7명 멤버가 소개하는 서울시 매력 소개 쇼츠 7편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엔하이픈 멤버 7인이 각각 소개하는 서울의 ‘7색’ 매력은 ▲스마트라이프워크,▲정원도시,▲서울야외도서관,▲서울담,▲서울패션워크,▲윈터페스타,▲쉬워쉬워 한강 3종 축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레저를 즐기는 도시로서의 서울, 뷰티,패션과 선진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확산하고자 한다.

엔하이픈 글로벌 홍보영상은 서울시내 주요 거점은 물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전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송출된다.

해외에서는 CNN(전 세계), 디스커버리(북미, 아시아 18개국)를 통해 방영되고, 디지털 OTT 플랫폼 ‘Max’와 유튜브를 통해 주요 방한 30개국 내 영어권,중화권 국가를 대상으로 광고 영상을 송출하여, 전 세계 2억 4천 5백만 명 외국인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고창 선운산 꽃무릇, 28일까지 절정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이번주 토요일(20일)부터 약 열흘가량이 꽃무릇 절정 시기를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운산 꽃무릇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명소로, 꽃과 사할 경관, 맑은 계곡이 조화를 이루어 걷기 좋은 산책길을 제공한다.

붉게 물든 꽃길을 따라 걸으면 특별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꽃무릇은 꽃과 잎이 서로 다른 시기에 피는 독특한 식물로 “만날 수 없는 인연”을 상징한다. 붉게 물든 꽃밭 속을 거닐면 누구나 로맨틱한 분위기와 함께 가을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주말(20~21일)에는 고창멜론 시식·판매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고창 멜론 페스타’와 부활, 홍진영 등 초대 가수의 노래를 즐길 수 제17회 산사음악회도 열려 고창의 가을 매력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정명훈과 호흡 맞춘 라 스칼라 필... "성공적인 모의고사"

차기 음악감독 지휘로 차이콥스키 '비창' 등 연주...악장 간 이례적 박수 유도

루간스키 피아노 협주도 인상적...18일 부산에서 한 차례 더 공연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오페라 악단 라 스칼라 필하모닉이 차기 음악감독 앞에서 성공적인 모의고사를 치러냈다.

라 스칼라 필하모닉은 17일 저녁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명훈(72)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와 라흐마니노프, 베르디를 연주했다.

정명훈은 아시아인 최초로 247년 역사를 자랑하는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돼 2027년부터 라 스칼라 필하모닉을 이끌 예정이다.

1부에서 베르디의 서곡 '운명의 힘'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몸을 풀 라 스칼라 필하모닉 단원들은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차이콥스

키의 교향곡 6번 '비창' 연주를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50분 가까이 소요되는 대작을 차기 음악감독 앞에서 완벽하게 연주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느껴졌다.

관객의 박수와 함께 포디움에 오른 정명훈이 약 10초간 부동자세로 단원들을 응시하자 공연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늘해졌다.

오케스트라 가장 뒤편에 선 타악기 연주자는 연신 마른침을 삼키며 정명훈의 지휘봉을 훑어쳐다 쳐다봤다.

단원들이 너무 긴장한 탓인지 1악장 연주는 씩 좋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 트롬본과 목관 악기들의 협주 부분에서는 악간의 불협화음이 들

렸다는 관객들의 평가도 나왔다.

다행히 2악장부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오케스트라답게 안정적인 연주를 이어갔다.

단원들은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은 정명훈을 바라보며 비장하고 격정적인 차이콥스키의 선율을 맞춰 나갔다.

웅장한 행진곡 형태의 3악장 연주는 라 스칼라 필하모닉이 왜 세계 최고의 오페라 악단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었던 무대였다.

알레그로(Allegro)의 빠른 템포에 맞춰 바이올린 등 현악기의 현란한 움직임과 트롬본 등 관악기의 경쾌한 뒷받침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어우러진 무대였다.

3악장이 '승리의 환희'로 마무리되자 일부 관객이 자신도 모르게 '어머'라며 감탄을 토해냈다.

이내 실수를 알아차린 듯 입을 막는 모습을 보였다.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단원들의 감정 정리를 위해 침묵을 유지하는 게 관습이었지만, 정명훈과 라 스칼라 필하모닉 단원들의 완벽한 호흡에 반사적으로 소리를 낸 것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관객의 소음에도 정명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씩' 웃어 보이며 객석을 향해 마음껏 손뼉을 쳐도 된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렇게 모두가 만족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악장과 악장 사이에 모든 관객이 박수하는 유쾌한 장면이 연출됐다.

당연히 마지막 4악장을 마친 공연장은 끝까지 없는 관객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